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9:1-13(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 2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 3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4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 5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 6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 7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8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 9 그 약속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10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11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 12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 13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이 느끼는 큰 슬픔과 고통은 무엇인가요? (1-3절)

→ \_\_\_\_\_

-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은 무엇인가요? (4-5절)

→ \_\_\_\_\_

-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나요? (6-8절)

→ \_\_\_\_\_

-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 \_\_\_\_\_

- 내가 속한 곳에서,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사랑하고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_\_\_\_\_

-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하나님의 선택이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의 믿음과 삶에서 '혈통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9:1-13(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바울보다 더 간절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지만 무가치한 자기에게 먼저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로지 사라를 통해서만 낳은 후손으로 제한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의 경우에도, 관습에 반하여 장자보다 어린 사내아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곧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근거한다는 '예정'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이 예정 교리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에,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는 신학적·철학적으로 여전히 깊은 논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운명적인 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정해진 거대한 강줄기와 같고, 인간은 그 강에 뛰어든 것인지 머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실현되는 선택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유를 통해 이루집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지만, 그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폐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포함하여 자신의 뜻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정과 자유 의지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조화롭게 공존하는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6. 기도